

불교음악상 후보 공모 조계종, 10월 24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제2회 불교음악상'을 개최한다. 수상자는 추천 공모를 통한 후보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음악 개발(작사, 작곡, 편곡 등)·보급(연주, 가창 등)·기타 불교음악 발전에 대한 모든 분야다. 추천 자격은 조계종 중앙총무 기관 각 부서장 및 교구본사 주지와 조계종 등록 사찰 주지 및 종단 등록 각급 문화·포교·신도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및 지원 접수 기간은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추천서 및 공적 조서(종단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공적사항 증명서류와 후보자 이력서를 작성 조계종 문화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3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총무원장 상장과 트로피 및 상금(대상 1명)은 500만원, 공로상(2명, 각 300만원), 원력상(2명,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정혜숙 기자

세계 슬로푸드대회서 사찰음식 정수 전한다

문화사업단, 이탈리아 토리노서

한국의 사찰음식이 세계 160여 개국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슬로푸드운동국제협회(회장 카를로 페트리니)가 개최하는 세계슬로푸드 대회에 초청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링고포에서 열리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의 정수를 전한다.

한국판에서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전시, 체험,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전시코너에서는 사계절을 대표하는 사찰음식 사진전과 사찰 전통 공양관을 재현한 탁구대 인형전과 함께 홍보영상 등을 통해 사찰음식의 과거와 오늘날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스님과 함께 사찰공양방법을 체험하고, 음식 만드는 시간도 마련된다. 정관스님과 발우공양을 해 보고, 우관스님으로부터 사찰감치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자리다. 또 행사기간 동안 사찰음식레스토랑을 운영해 점심과 저녁 사찰음식을 판매한다.

워크숍에 참석해 사찰음식의 특성을 알리기도 한다. 선재스님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맛 워크숍에 참석해 '한국의 전통장맛'을 주제로 발제하며, 대안스님은 한국관 내에서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을 한다. 신성민 기자

창간 20주년

“說法도 종단 지도자의 자격”

조계종 2, 3급 승가고시 시행
2급 고시서 종단 첫 설립시연
고시위·제가 평가단 참여 심사
내년 4월, 1급 승가고시 개최

중앙총무기관 부실장과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종단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스님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진행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10월 10일 중앙승가대 지혜관에서 2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2급 승가고시에는 기존 '논술고사' 외에 '설법시연' 분야가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설법시연은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직장인, 공무원, 일반불자, 환자 및 임종환자 등 설법 주제와 대상을 선택해 미리 제출한 설법문안을 토대로 10분간 법문을 시연했다.

심사는 고시위원 스님 3명으로 구성된 설법평가위원 외에도 김포불교대학 수강생과 포교사 등 10명으로 이뤄진 청중평가단이 맡았다. 평가위원과 평가단은 응시 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감화력 △설법주제의 부합도와 논리성 △경전 활용도 △표현력 및 설법자세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사했다.

논술고사는 지혜관 2층에서 진행됐다. 스님들은 수행분야에서 '조사선과 간화선의 차이 및 특성', '자살·안락사·가축질



10월 10일 열린 조계종 2급 승가고시에서는 설법 시연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응시자 스님이 설법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교육원

병에 따른 대량 동물 살처분 문제 등 생명경시사상 극복을 위한 불교적 대안', 포교·사찰운영분야에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현대인에 대한 포교방안', '종단 공찰에 대한 재정공영화 방안' 등 미리 제시된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준비된 답안을 작성했다.

오후에는 응시자들에게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은 각각 2개조로 나뉘어 수행이력과 불교관을 점검하는 질문에 답변했다.

이에 앞서 고시위원회는 9일 중앙승가대 학교 지혜관에서 3급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필수과목이던 '조계종사'는 올해부터 주관식 단답형 문제풀이로 대체됐다. 2,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발표는 15일 오후 2시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고시위원회는 다음해 4월 중순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급 승가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역대 최초로 진행될 1급 승가고시는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연간 30점씩 5년, 누적점수 150점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다.

1급 승가고시 응시자는 2급, 3급과 달리 문제풀이·논술·설법이 아닌 대덕·혜덕 법계품수 이후의 수행 및 교화활동 이력과 향후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갈마'를 통해 평가한다. 선·교·율·종무행정 분야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종사 이상의 비구 8명, 명덕 이상의 비구니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루어진 갈마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 '잡음'

조계종 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곳곳에서 잡음을 낳고 있다. 제주 관음사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한 말사 주지 임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출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16대 중앙총회의원 총선거에서 제23교구 관음사 중앙총회 의원에 입후보한 승언 스님이 10월 10일 후보부에 관음사 주지 성효스님과 말사 주지 10명의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9일에는 관음사 교구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했다.

승언 스님은 이의신청서와 고소장을 통해 "관음사는 16대 중앙총회 의원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12개 말사 주지를 임명하였다"며 "용주사 말사인 여주 반야사와 당진 극락사가 관음사의 말사로 등록돼 본사가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지로 임명받은 이후 사찰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신도들의 제보가

있다"며 "이는 '종무원법'의 복무지 이탈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선거권을 박탈함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출을 두고 전국 비구니회와 일부 중진 스님이 나눠져 마찰

제주 관음사, 미입주 말사 9곳
주지 임명... 선거인 확보 논란
비구니 총회의원 선출 마찰
열린 모임 "중법 위배해 무효"

을 빚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 측에 반발한 1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자체적으로 '열린비구니모임(공동준비위원장 혜운·임대·정현)'을 구성하고 "대중공의를 외면하고 비구니회 소수 운영진이 제16대 비구니 총회의원 후보를 독단적으로 선출했다"며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공

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비구니모임은 10월 9일 성명을 발표함에 이어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출은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도 "비구니 중앙총회 선출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로 이의 신청서를 접수시킨 진명 스님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은 비구니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중헌중법의 틀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소수의 전국 비구니회 운영진이 중헌중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총회의원 후보를 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구니 총회의원은 전국 6000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대의성을 갖는 점에서 비구니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비구니회가 소수 운영진의 의견에 따라 총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국제불교연맹 한국지부 설립 부탁”

IBC 라마롭상 스님, 8일 자승 스님 예방

국제불교연맹(IBC, 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사무총장 라마롭상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IBC 한국지부 설립, 인도 불교성지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했다.

라마롭상 스님은 10월 8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지난해 11월, 3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IBC를 창립했다. 현재 인도 정부와 성지사업 위원회를 구성, 부다가야·나란다 대학·쿠시나가라 등 주요 불교성지의 기반시설 개발 및 보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께서 내년 10월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세계평화기원대회에 초청해 주셨다. 마침 10월 말에 IBC 총회도 열릴 예정인 만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예방한 키쇼 IBC 상임이사는 IBC 한국지부 신설을 요청했다. 키쇼 이사는 "IBC 회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포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도 IBC 지



IBC 사무총장 라마롭상스님은 10월 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부를 설립하고자 자승스님을 찾아뵙게 됐다"며 "지부가 설립되면 조계종과 IBC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포교 활성화 및 국제 사업 추진 등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승스님은 "한국 방안을 환영하고 IBC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우리 종단도 IBC 발전 및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 발전 이끌 인재 양성해달라”

조계종, 3기 장학위원 위촉... 위원장에 보광 스님

조계종이 종단 인재 양성을 위한 제3기 장학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등 제3기 장학위원회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제3기 위원장은 위원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법진 스님, 무애 스님, 대구 선본사 주지 성본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선일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정도 스님 등 11명이다. 임기는 2016년까지 2년 간이다.

자승 스님은 "스님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진흥위원회

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잘 선정해 종단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광 스님은 "그동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전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부는 물론 평소 생활 태도까지 평가로 삼는 등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졸업 후 종단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조계종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2010년 6월 처음 구성됐다. 그동안 58명의 스님들에게 3억 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덕현 기자



제3기 조계종 장학위원. 왼쪽부터 성본·계호·원명·원학·총무원장 자승 스님·보광·선일·정도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이사장 화엄

원로의장 용암
원로부의장 명중
원로간사 법운

총회의장 해동
총회부의장 보각
경기남부총회의원 도원, 일성
경기북부총회의원 지산
경북총회의원 법연
전남총회의원 자각, 지산, 지현
충남총회의원 삼규
제주총회의원 동해
부산총회의원 재성
대전총회의원 정원
사무처장 도천

교육원장 보월
포교원장 지현
감사원장 성일
선거관리위원장 재성
총무부원장 상원

총무부장 광은
교무부장 법광
재무부장 정원
포교부장 동해
규정부장 혜명
비구니회회장 보현
비구니회부장 연수
자비실천나눔회장 광명심
봉사위원장 청정심
봉사부장 수연
조직위원장 문상철
문화부장 연화

총무국장 도천
교무국장 송암
포교국장 삼규
사회국장 정수
홍보국장 도화

경기남부총무원장 일성
경기북부총무원장 지산
경북교구총무원장 법연
전남교구총무원장 지현
충남교구총무원장 삼규
충북교구총무원장 도천
제주교구총무원장 동해
대전교구총무원장 정원
부산교구총무원장 재성
대구교구총무원장 보각